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성 대립자 유형의 변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The Alteration of Female opposant Types Shown in Melodramas
-From 1992 to 2011-

이화정
부천대학교

Hwa-Jeong Lee(jung7061@hanmail.net)

요약

2005년 이후 멜로장르 TV 드라마에 나타나는 여주인공의 대립자 여성의 여성상에 대한 관습적 변화상을 알아보기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시청률 상위 10위권 멜로 드라마 중 여성 대립자 유형이 나타나는 27편의 드라마에 여성 대립자 유형의 변화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립자 여성은 2005년 이후 첫째, 온순한 성격이 증가하였다. 둘째, 순수한 여성적 외모가 증가하였다. 셋째, 보수적인 성의식을 가진 여성이 증가하였다. 넷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성향이 증가하였다. 과거 비여성적이거나 치장형의 외모를 갖고 있는 강한 성격의 여성이 여성대립자 유형으로 대변되었던 것에 비해 2005년 이후 여성대립자 유형은 과거 여주인공의 여성상에 가깝게 바뀌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여성상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 중심어 : | 멜로드라마 | 여성 대립자 | 여성상 | 여성 유형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pposant of conventional images of women against heroines in the genre of TV melodramas having been produced since 2005. To attain the goal, it investigates the alteration of female opposant types in 27 dramas with female opposant in them among the melodramas positioned high in terms of ratings from 1992 to 2011. As a result, first, after 2005, docile tendencies increased in female opposant. Second, pure and feminine appearance increased. Third, women with conservative sexual consciousness increased. Fourth,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y showed more dependent tendencies. Although female opposant in the past were characterized by strong character, unfeminine attitudes, or dressing up the outside, after 2005, female opposant tended to show characteristics more like heroines' in the past. This research result implies that after 2005, there has been alteration in the paradigm defining female image.

■ keyword : | Melodramas | Female | Opposant | Female Image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드라마 여성주인공 유형의 변화상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으로서 이전 연구는 2005년을 기준으로 여성주인공의 여성상 유형의 변화상을 분석한 논문이다[1]. 본 연구에서는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에서 제시하는 대립자 여성 유형에 대한 2005년 이후의 변화상을 분석한 연구로 멜로 장르의 여성 대립자 유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여성 대립자 유형이라 함은 멜로장르에서 남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여성 주인공과 삼각관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성 인물이다. 이런 여성 대립자 유형이 2005년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보여 지는 멜로장르에 여성대립자 유형은 비여성적이거나 치장형의 여성적 외모를 갖고 있는 강한 성격의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종합병원(1995, MBC)의 이정화(신은경 분)는 남자처럼 짧은 머리에 바지를 입고 남자동료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양성적 이미지의 여성이다. 대학친구이자 동료의사인 김도훈을 좋아하지만 김도훈은 이정화를 친구로서 좋아할 뿐 이성으로 느끼지 않으며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김소영(박소현 분)을 사랑한다. 이에 대해 김훈순·김명혜는 드라마에 빈번히 나타나는 서사전략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두 여성의 대비를 다루는 삼각관계를 통한 ‘선택과 배제’의 미디어 전략을 말한 바 있다. 여성적 외모를 지닌 여성과 양성적 이미지를 지닌 말괄량이 여성형이 동시에 한 남성을 좋아할 경우 양성적 특성을 지닌 여성은 부정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으나 여성적인 매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남성의 친구일 뿐 사랑을 얻는 데 실패한다. 그리고 가부장적 미덕을 지닌 여성적 외모의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가부장적 질서로 편입하게 된다는 분석이다[2]. 미스터큐(1998, SBS)의 황주리(송윤아 분)는 회사 실세의 외동딸로 강한성격에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는 여성대립자이다. 주인공 남성을 흠모하여 여성주인공 한해원역의 김희선과 대립을 한다. 긴 생머리에 수수한 미모의 김희선과 외형상 대조가 되는 황주리는 단발에 짙은 눈썹, 스모키한 눈화장 강렬한 립스틱으

로 치장형의 여성적 외모를 가지고 있다. 홍지아는 이렇듯 치장형의 여성적 외모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연적으로 설정됨으로서 이 시대가 여성의 꾸민 아름다움 보다는 타고난 아름다움을 우위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3]. 그러나 연구자의 이전연구를 연구를 통해 볼 때 2005년 이후 여성주인공의 여성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여성주인공의 외형이 2005년 이후 비여성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변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멜로장르에서 배제되는 여성대립자의 대표적 유형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이러한 여성상이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선택을 받는 대표적 여성주인공 유형이 되었다[1]. 그렇다면 멜로장르에서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선택을 받지 못해 사랑에 실패하고 배제되는 여성 대립자 유형은 2005년 이후 어떠한 여성상 유형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여성상에 대한 관습적 변화상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좌 「종합병원」 신은경, 우 「미스터 큐」의 황주리

2. 이론적 논의

2.1 여성상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2.1.1 여성상 분석 유목

TV드라마에서 재현하는 여성이미지에 대한 국내 연구의 경향은 한국의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인 성역할 연구와 여성이미지에 대한 의미화의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성 재현의 의미화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에서 어떻게 성차별적인 여성이미지가 생산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여성이미지 재현에 담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맥락과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이다[4]. 여성재현의 의미화에 대한 연구로는 멜로장르에 나타나는 가부장

적인 질서를 분석한 하윤금(1999)의 연구와 한국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 전략과 여성 이미지의 정치적 배치 전략을 연구한 (김훈순, 김명혜(1996)의 연구와 김명혜, 김훈순(1996)의 연구가 있고 2000년대 TV드라마의 어머니상의 정치적 전략을 연구한 홍지아(2009)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정시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성역할에 대한 양적연구는 미디어가 실제 사회적 삶을 진실하게 재현해야 하며 또 미디어의 내용과 그 사회적 영향 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터크만의 가정을 전제한다. 터크만은 성역할과 관련하여 미디어는 얼마간의 문화치체는 있지만,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태도를 반영한다고 말한바 있다[6]. 성역할에 대한 양적 연구는 미디어에서 어떤 여성 이미지를 생산했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므로 특정시대의 미디어에 재현되는 여성상 경향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준다. 성역할에 대한 양적연구 중 2000년대에 발표된 논문에서 여성상을 분석하는 유목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에 등장하는 여성상 분석 유목

연구자	여성상 유목
김훈순박 동숙 (2002) 김선남외 (2004)	· 전통적인 여성상 · 슈퍼우먼 여성상 · 진보적인 여성상
서숙영 (2006)	· 성역할 (진보적, 보통, 진보적이지 않은) · 변화된 여성상 (전통적, 진보적, 강한) · 구성원 (사회적존재, 공적인존재)
정기현 (2007)	· 가사노동자로서의 여성상 · 외적인 미를 추구하는 여성상 · 남성 의존적 여성상 · 성적 주도권을 가진 적극적 여성상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여성상 · 독립적인 여성상 · 만능인으로서의 여성상 · 자유분방한 여성상
한은경 (2003)	· 조직에서의 여성이미지 (현모양처, 뒤편진 주부, 지적인 주부, 전문직, 슈퍼우먼, 학생, 기타) · 독자적인 개체로서의 여성특성 (아름다운, 신세대, 중성적, 평범) · 여성의 타인과의 관계 (주도적, 부수적, 관음적시선주체, 관음적시선객체, 동등한관계)
이지현이 동일 (2008)	· 트렌디한 ·귀여운 ·역량 있는 ·여성스러운
박종만 곽은경 (2007)	· 연령 · 국적 · 결혼 유무

	· 직업(전문직유무, 기능직, 관리직) · 학생/가정주부/직장인/예·체능계/해당 안 됨 · 전통/ 비전통 역할 · 사회적 신분(장식적 역할, 가정이나 여성다운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 전문직 여성상이되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으로 묘사,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묘사, 남성과 여성을 각각의 독립된 개체로 묘사)
김영숙 (2011)	지배하는 여성, 배려하는 여성[16]

2.1.2 선행연구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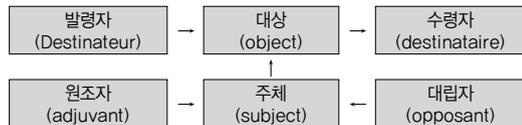
최근에 드라마의 여성상 유형을 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90년대 여성상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 홍지아는 90년대의 여성상과 2000년대의 여성상에 차이가 없는 이유는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TV 드라마의 여성상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3]. 김순기 역시 여성상 유형의 유목 중 극히 일부분인 착한 유형과 청순가련형이 점차 감소하나 여성주인공의 연령은 여전히 90년대와 같은 20대가 높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가부장적 가치관이 TV드라마의 여성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TV드라마 여성상의 변화를 양적인 연구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는 형식적인 연대기적 시기구분에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여성상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 해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의 변화, 포스트 페미니즘 텍스트의 유입, 호적법폐지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2005년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드라마 여성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에는 여성주인공의 연령은 30대 이상, 여성의 사회적 신분수준은 높아지고 비여성적인 외모의 여성주인공의 증가현상과 연상녀/연하남 커플유형의 증가, 문제해결방식에서 자기주도적인 경향의 증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성향의 증가 현상을 밝혀낸바 있다[1].

2.2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

기호들간의 텍스트 분석은 크게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텍스트는 사건들이 전개되는 순서에 의해 “통합체 구조” 그리고 텍스트 속에

서 발견되는 숨겨진 대칭에 의해 “계열체 구조” 두가지 방식으로 의미를 생성한다. 프로프의 형태학적 기능 분석과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은 통합체 분석에 원용되는 개념적 틀이다[8]. 행위소 모형은 구조주의 기호학자인 그레마스가 프롭과 레비스트로스의 연구를 종합 일반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모형이다. 그레마스는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이루는 기능을 어떤 ‘연기자(acteur)’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인물들을 이원대립구조로 보다 단순화시켜 ‘행위소(actant)’를 도출하게 되는데, ‘주체’, ‘대상’, ‘발령자’와 ‘수령자’, ‘원조자’와 ‘대립자’의 여섯이 바로 그것이다[9]. 그레마스는 ‘주체’와 ‘대상’은 프롭이 언급한 인물들 중에서 ‘주인공’과 ‘찾는 인물’에 해당되며 담화는 주체가 대상을 얻으려 하는 욕망에 의해 진행된다고 그레마스는 말하고 있다. 이후 대상을 주는자와 받는자는 전달(communication)이라는 축에 의해 ‘발령자(Destinateur)’와 ‘수령자(destinataire)’로 연결하였다. 또한 주체가 대상을 얻는 과정을 돕거나 방해하는 것에 따라 ‘능력’이라는 축에 의해 연결된 ‘원조자(adjutant)’와 ‘대립자(opposant)’로 설정하였다. 여섯 개의 행위소로 이루어진 행위소 모형중 ‘원조자’는 프롭의 ‘원조자(auxilaire)’와 ‘증여자(donateur)’가 결합된 것으로, ‘대립자’는 주체가 대상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내지는 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로맨스장르에서의 대립자는 주로 여성주인공의 연적에 해당되며 주인공이 남성주인공과의 사랑을 성취하는 욕망의 과정에서 대립을 하게 된다. 행위소 모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



J. Courtes,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narrative et textuelle, Hachette, 1976, p.180.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p.156 재인용

2.3 멜로장르에 대한 양가적 입장의 여성 수용자

멜로장르에 대한 연구는 멜로장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서 시작되는데 정의를 둘러싼 어려움은 끊임없

는 논쟁을 생산하고 있다. 글레드힐(Christine Gledhill)의 「멜로드라마에 대한 고찰」(“The Melodramatic Field: An Investigation” 1987)을 살펴보면 80년대에 멜로드라마는 비극 및 리얼리즘 양식과 비교해 평가 절하되어 연구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년대 말 프랑스 구조주의와 신막스주의적 경향이 영미 영화 비평계에 수용되면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예술과 대중문화의 대립적 위계가 재고되었 으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비평 담론의 화두로 떠올랐다. 리얼리즘 양식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재평가되고 오히려 이제까지 평가 절하 되어 오던 멜로 드라마적 과잉과 형식적 비일관성이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드러내는 틈새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도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계 내에 이분법과 계몽적 위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문화담론 내부에서도 다양한 발화가 가능해지며 멜로드라마에 대한 비평적·학문적 접근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0].

특히 페미니즘 계열의 학자들에게 멜로장르는 다양한 논란거리를 가져다주었다. 멜로장르가 이성애적 서사를 기반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고 남성우위를 영속시키는 장치로 읽혀진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멜로장르의 주 수용자 층이 여성수용자라는 사실은 또 다른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모들레스키는 멜로장르를 여성적 욕망이 표출되는 완전한 여성성을 드러내는 장르로 인식하고 멜로장르를 여성적 욕망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11]. 멜로장르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 윤선희는 신데렐라류의 멜로장르를 즐겨보는 여성 수용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드라마를 보는 관점은 인간관계의 진정성, 로맨스와 같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영역이며 남성으로 인한 신분상승의 욕구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신데렐라 드라마를 보는 여성 시청자에 대한 일부 비평가들의 생각은 ‘남성에 의해 재구성된 잘못된 여성의 욕망’이라고 얘기하며 신데렐라 드라마가 드라마 제작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들에 의해 남성의 욕망이 전이되어진 상태로 구성되어졌다고 주장한다[12]. 구조적인 남성 우위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용자에게 관람의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로 제시하는 멜로장르의 이러한 양가적 속성은 여성 수용자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한 장치로 꾸준히 연구되어져야 할 분야이다.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그레마스가 행위자 모형에서 제시하는 대립자 여성 유형은 2005년 이후 멜로장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3.2 연구 방법

3.2.1 분석대상

한국 TV드라마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드라마의 소재와 내용에 있어 정치,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던 시기로 사회적 변화가 TV드라마에 담겨지기 어려운 시기였다[13].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언론통제의 법적 장치였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 방송법이 제정되었으며(1990.9.1), 군부독재가 마감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1993.3 김영삼 정부 출범). 이에 맞춘 1991년 12월 9일 민영방송 SBS의 개국은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시청자의 문화적 욕구와 심리적 동일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대반영의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의 여성상이 반영될 여건이 갖추어 졌던 1992년부터(상업적 민영방송국의 개국을 90년대 방송 환경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다 (오명환,1994; 김선열 외, 1999; 김승현 외, 2001; 정영희, 2005; 이화정, 2012) SBS 개국이 1991년이나 12월로 개국과 함께 시작된 드라마라 하더라도 보통 10부작 이상 입을 감안하면 해당 드라마의 방영시기는 더 많이 방송된 해인 92년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시청률 조사가 시작된 시기는 1992년 AGB 닐슨 미디어로 그 이전시기의 시청률 조사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2011년까지의 멜로 드라마 중 시청률이 상위에 위치하고 여성 대립자 유형이 존재하는 드라마를 선별하여 멜로장르에 나타나는 여성 대립자 유형의 변화상을 조사하고자 한다. 여성상에 대한 관습적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일

정 정도 대중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시청률 상위의 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005년 이전에는 시청률 100위 안의 전체 드라마 중 멜로장르를 선별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시청률 상위 20% 이상인 멜로장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시청률 20% 이상 멜로드라마. 시청률을 적용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이후 다양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드라마 시청률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시청률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자료제공: AGB닐슨미디어리서치: 분석기간 199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평균시청률 순의 집계 상위 100위안에 드는 멜로드라마, TNS KOREA: 분석기간 2005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시청률 상위에 위치한 멜로장르 드라마 중 여성 반대자 유형이 존재하는 드라마와 여성 대립자는 [표 3]에서 보이는 27명이 선정되었다. 드라마의 방송연도는 두해가 겹쳐 있을 경우 방송일수가 더 많은 해로 정하였다.

표 3. 분석대상 드라마와 여성 대립자

	1992-2004		2005-2011	
	드라마 명	대립자	드라마 명	대립자
1	보고또보고	금주	여인의 향기	임세경
2	사랑과 성공	김명지	내이름은 김삼순	유희진
3	해피투게더	채림	찬란한 유산	유승미
4	엄마야 누나야	행자	시크릿 가든	윤슬
5	애인	이영애	여우야 뭐하니	고준희
6	첫사랑	강석희	히트	정인희
7	별은 내 가슴에	이화	커피프린스 1호점	한유주
8	신데렐라	장혜진	환상의 커플	오유경
9	예감	장세영	최고의 사랑	강세리
10	미스터 Q	황주리	하늘이시여	강예리
11	청춘의 덫	영주	궁	민효린
12	토마토	윤세라	돌아와요 순애씨	한초은
13	사랑해당신을	백장미	마이걸	김세현
14	진실	신희	쩨의 전쟁	이치연
15	가을동화	신유미	행복한 여자	조하영
16	명랑소녀 성공기	윤나희	태양의 여자	윤사월
17	유리구두	승희	온에어	서영은
18	불꽃	하민경	꽃보다 남자	하재경
19	노란손수건	조민주	신기생연	금라라
20	두번째 프포즈	황연정	아이리스	김선화
21	이브의 모든것	하영미	싸인	정우진
22	해바라기	최화경	유리의 성	김준희
23	질투	이응경	식객	주희
24	폭풍의 계절	이홍주	발리에서 생긴일	최영주
25	사랑을 그대 품안에	고은채	파리의 연인	오주은
26	젊은이의 양지	하성란	천국의 계단	한유리
27	서울의 달	미선	플 하우스	강혜원

3.2.2 여성상 분석 유목

여성상 분석 유목은 연구자의 2012년 논문의 유목을 가져와 사용하였다[14]. 여성 등장인물의 여성상 분석 유목으로는 크게 기술적 분석 유목과 특성분석유목으로 나누었다. 기술적 분석 유목으로는 여성 주인공의 연령, 결혼 유무, 직업, 경제적 수준, 여성의 사회적 신분의 5항이다. 특성 분석 유목으로는 성격, 외형적 특성, 커플유형, 성의식, 문제 해결 방법, 타인과의 관계의 6항이다. 여성상 표상의 분석 유목은 [표 4]와 같다.

표 4. 여성상 표상의 분석유목

	유목	내용	출처
기술적 분석 유목	연령	1. 20대 2. 30대 이상	홍지아(2010) 수정보완
	결혼 유무	1.미혼 2.기혼	Gilly(1988) 수정보완
	직업	1. 전문 관리 경영직 2. 그 외	양문화 강형철(2005)
	경제적 수준	1. 상 2. 그 외	홍지아(2009)수정 보완
	여성의 사회적 신분	1. 수준 낮음(수준 1,2,3) 2. 수준 높음(수준 4,5)	Pingree, Hawkins, Butler&Paisley(1976) 수정 보완
특성 분석 유목	성격	1. 온순 2. 강함	홍지아(2009) 수정보완
	외형적 특성	1. 처장형 여성적 외모 2. 순수한 여성적 외모	홍지아(2010)
	커플 유형	1. 연하녀/연상남 2. 동갑, 연상녀/연하남	김명혜(2006)수정 보완
	성의식	1. 보수적 2. 개방적	서숙영(2006) 김명혜(2006) 수정 보완
	문제 해결 방법	1. 타인 의존 2. 자기 주도	윤선희(2005) 수정 보완
	타인과의 관계	1. 수동적 2. 동등하거나 주도적	한은경(2003) 수정보완

3.2.3 코더간 신뢰도

코딩기간은 2012.2.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었고 연구자를 포함한 한명의 코더가 코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코더 간 신뢰도는 91%였다. 이후 분석에 있어서 오차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를 통해 TV드라마 속의 여성이미지와 분류항목에 대한 동의를 이룬 후 분석대상인 27편의 드라마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분류하였다.

3.2.4 통계방법

분석대상 드라마의 1, 2회 방영분을 시청한 후에 여

성상 유형을 분류하였고 1, 2회분에서 반대자 역할의 여성상 유형이 보이지 않을 시에는 여성상 유형이 나타날 때까지 시청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2, program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는 명목변수이므로 단순 분석(univariat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단순분석에는 교차분석(Chi-square test)과 피셔의 정확 검정법(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5%(P value = 0.05)로 검증하였고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함께 표시하였다.

4. 분석 및 분석 결과

여성등장인물 중 대립자의 여성상 유형의 2005년 이후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성격, 외형적 특성, 성의식, 타인과의 관계에서 $P < .05$ 의 유의미한 변화상을 보였다. (연령과 결혼유무, 직업,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수준, 커플유형과 문제해결방법은 변화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V드라마의 반대자 여성인물의 성격은 2005년 이후 온순한 성격이 증가하였다(오즈비 4.04; 95%신뢰구간 1.30-12.59).

둘째, TV드라마의 반대자 여성인물의 외형적 특성은 2005년 이후 순수한 여성적 외모가 증가하였다(오즈비 8.36; 95%신뢰구간 2.26-31.00).

셋째, TV드라마의 반대자 여성인물의 성의식은 2005년 이후 보수적인 성향의 여성인물이 증가하였다(오즈비 5.71; 95%신뢰구간 1.76-18.50).

넷째, TV드라마의 반대자 여성인물은 2005년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여성상이 증가하였다(오즈비 3.95; 95%신뢰구간 1.07-14.65)

표 5. 방영 시기별 여성대립자 유형 빈도

년도 (N)	1992-2004 (27명)	2005-2011 (27명)	오즈비 (95% 신뢰구간)	P-value
연령(30대 이상)	7명 (25.9%)	7명 (25.9%)	1.00 0.30-3.38	1.000
결혼(미혼)	20명 (74.1%)	25명 (92.6%)	4.38 0.81-23.42	0.142
직업(전문 관리)	16명	16명	1.00	1.000

경영직)	(59.3%)	(59.3%)	0.34-2.96	
경제적 수준(상)	19명 (70.4%)	20명 (74.1%)	1.20 0.37-3.97	0.761
여성의 사회적 신분 수준(수준 높음)	14명 (51.9%)	19명 (70.4%)	2.21 0.72-6.75	0.163
성격(은순)	8명 (29.6%)	17명 (63.0%)	4.04 1.30-12.59	0.014
외형적 특성(순수, 중성)	4명 (14.8%)	16명 (59.3%)	8.36 2.26-31.00	0.001
커플유형(동감, 연상녀/연하남)	8명 (29.6%)	10명 (37.0%)	1.40 0.45-4.36	0.564
성익식(보수)	7명 (25.9%)	18명 (66.7%)	5.71 1.76-18.50	0.003
문제해결 방법(자기주도)	21명 (77.8%)	17명 (63.0%)	0.49 0.15-1.61	0.233
타인과의 관계(의존)	4명 (14.8%)	11명 (40.7%)	3.95 1.07-14.65	0.033

90년대 후반의 멜로장르를 연구한 김훈순·김은정은 멜로장르의 여성상은 과거의 여성상과 근본적인 면에서 변화가 없으며 여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내성적이고 순진하고 순결한 귀여운 여성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15].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여성반대자 유형이 이런 전통적인 여성상을 따르고 있어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여성의 강한 성격과 개성적 외모, 독립성은 남성 주인공을 위협하는 경우로 받아들여졌으나[16] 2005년 이후에는 이러한 여성상이 주인공 여성상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선택받게 되고 전통적인 여성상은 배제되었다. 온순한 성격, 수수한 여성적 외모는 개성 없는 여성으로 인식되고 타인에게 의존적인 성향은 남성에게 기대는 능력 없는 여성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환상의 커플」(2006, MBC)의 오유경은 남성 주인공의 첫사랑 여인으로 여성주인공과 남성주인공의 로맨스를 방해하는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여성대립자이다. 거센 성격과 거친 말투 부스스한 옷차림의 여성주인공과 외형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오유경은 검고 긴 생머리에 흰 피부, 조용한 성격과 차분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 오유경은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내세워 능력 있는 남성을 만나 신분상승을 이루고자 애쓰는 인물로 변변한 직장도 없고 집안도 좋지 않다. 남성 주인공이 돈이 없고 돌봐야 할 식구들이 많은 것에 실망하여 헤어지고 능력 있는 남성과 약혼을 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어 다시 남성 주인공에게 돌아와 마음을

흔드는 인물이다. 결국에는 남성주인공이 여성주인공을 선택하면서 배제되는 인물이다. 「내이름은 김삼순」(2005, MBC)의 유희진 역시 남성주인공의 첫사랑이었던 여성으로 여성주인공 김삼순과 좋게 지내려 하던 남성주인공 앞에 나타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성주인공의 사랑을 휘방하는 여성 대립자이다. 아름다운 외모에 이지적이며 따뜻 하다는 부부의 외동딸로서 의대에 재학 중인 엘리트이다[18]. 남성 주인공과 사귀던 중 암에 걸리게 되고 남성주인공에게 말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암을 치료하고 다시 사랑을 찾아 한국에 돌아오는 순애보적인 여성이다. 멜로드라마의 전형적 주인공 여성상이라 할 수 있는 유희진은 예쁘지도 않고 뚱뚱하며 젊지도 않고 거친말투를 쓰는 여성 주인공 김삼순과 대비되며 결국에는 남성주인공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여성 대립자이다. 「커피프린스 1호점」(2007, MBC)의 한유주 역시 남성주인공의 첫사랑이자 짝사랑 여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위해 남자분장을 한 여성주인공의 사랑에 갈등을 제공하는 여성 대립자이다. 한유주 역시 검고 긴 생머리에 날씬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비여성적 외모의 여성주인공 고은찬과 대립한다. 「식객」(2008, SBS)의 주희는 여성 대립자로 마음 깊고 여성스러운 인물이다. 남성 주인공 성찬을 짝사랑하나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여성으로 남성주인공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준다. 활동적이고 말괄량이인 여성주인공과 남성주인공을 높고 대립하게 되나 결국 남성주인공에게 배제된다.



그림 2. 좌측 「환상의 커플」 오유경, 우측 「내이름은 김삼순」 유희진

5. 결론

2005년 이후 TV의 멜로드라마에 나타나는 대립자

여성상에 대한 관습적 변화상을 알아보기 위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시청률 상위에 위치한 멜로 드라마 중 여성 대립자 유형이 나타나는 드라마 27편의 여성 대립자 유형의 변화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립자 여성은 2005년 이후 첫째, 온순한 성격이 증가하였다. 둘째, 순수한 여성적 외모가 증가하였다. 셋째, 보수적인 성의식을 가진 여성이 증가하였다. 넷째,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의존적인 성향이 증가하였다. 2005년 이전에 비여성적이거나 치장형의 여성적 외모를 갖고 있는 강한 성격의 여성상이 여성대립자 여성상으로 재현된 것에 비교해 정 반대의 변화가 있었으며 2005년 이후의 여성대립자 유형은 2005년 이전에 여성주인공 유형으로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2005년을 기준으로 나는 이전과 이후의 시기간에 시청률 조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90년대 상위 시청률은 전반적으로 40%대 이상이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다양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드라마의 시청률이 예전에 비해 낮아져 두 시기에 대해 같은 시청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질적인 방법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진 여성상의 변화를 양적 연구방법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 있으며 TV드라마의 여성상의 변화는 여성주인공 뿐만이 아니라 여성대립자 유형에서도 나타났음을 밝혀내는데 있다.

참 고 문 헌

[1] 이화정, 한국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 주인공의 여성상 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2] 김훈순, 김명혜,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전략”, 언론과사회, 제12권, 여름호, pp.23-24, 1996.
 [3] 홍지아, “TV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9권, 2010.
 [4] 김훈순, 김미선, “여성 담론 생산의 장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 - 30대 미혼여성의 일과 사랑을 중심

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1호, 2008.
 [5] 하윤금, “멜로드라마의 이성애적 서사구조에 대한 해석 <칭춘의 뒷>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연구, 창간호, 1999.
 [6] G. Tuchman, “Women’s depictions by the mass media,” signs, Vol.4, No.3, Spring, pp.528-542, 1979.
 [7] 윤태일, “여성의 날씬한 몸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 언론학회, 제48권, 제4호, p.13, 2004.
 [8] 공현희, 행위소 모형과 에니어그램으로 본 캐릭터의 역할과 성격의 상관성 연구:애니메이션의 표현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9] 조은선, “전후 한국 멜로드라마 담론을 통해 본 영화적 근대성과 근대적 여성상”, 문학과 영상, 겨울호, p.232, 2007.
 [10] 박유희, “한국 멜로드라마의 형성 과정 연구-저널리즘에 나타난 ‘멜로드라마’ 장르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 연구, 제38호, p.182, 2009.
 [11] 타니아 모듈스키, 1991, 노영숙 옮김, 여성 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2007.
 [12] 윤선희,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역 전이와 코라: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의 시각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다시 읽기”, 한국언론학회, 제49권, 제2호, 2005.
 [13] 김승현, 한진만, 한국사회와 텔레비전 드라마. 한울아카데미, 2001.
 [14] 이화정, 한국 TV드라마에 재현된 여성 주인공의 여성상 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영상학과 박사학위논문, pp.55-61, 2011.
 [15] 김훈순, 김은정, “한국멜로영화의 장르연구: 관습의 반복과 변형”, 한국방송학보, 제14권, 제1호, p.140, 2000.
 [16] 김영숙, “지배하는 여성과 배려하는 여성이라는 개념쌍을 통해 본 영화 <피아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0호, 2011.
 [17] <http://www.imbc.com/broad/tv/drama/samsoon/cast/cast3/index.html>

저 자 소 개

이 화 정(Hwa-Jeong Lee)

정회원



- 1998년 2월 : 홍익대학교 동양화
과(미술 학사)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동양화
과(미술학 석사)
 - 2012년 2월 : 홍익대학교 영상학
과(미술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방송미디어 콘텐츠